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6. 18(화) / 총 1매(본문1)
담당부서	노선버스근로시간 단축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	담당자	· 과장 김동익, 서기관 이경호 · ☎ (044) 201 - 4152, 4153
	대중교통과	담당자	· 과장 김동준, 사무관 김종욱 · ☎ (044) 201 - 3823, 3832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신규 버스운전자 채용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우리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통해 대형버스 주차, 운전주행, 안전교육 등 실제 실습 훈련을 거친 인력을 양성 중으로 버스업계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○ 일부 버스업체는 신규자도 인력 채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, 경기도 주요 버스업체(300인 이상)에 대한 채용 현황 확인 결과, 신규자 채용 규모는 예년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< 최근 3년간 경기도 300인 이상 버스업체 신규자 채용규모(월평균) >

구분		'16년	'17년	'18년	'19.1~4월
입사자	신규자	264명/월	240명/월	161명/월	38명/월
	경력직	115명/월	162명/월	327명/월	424명/월

○ 또한, 버스업체가 신규자를 채용하더라도 자체 훈련 프로그램(4~8주) 등을 통해 안전 우려가 없도록 교육한 이후, 운전이 쉬운 노선, 중형 차량에 우선 투입하는 등 실제 노선 운행에 원활히 적응하고 안전 운전이 가능하도록 관리 중입니다.

□ 국토부와 지자체는 버스업계가 신규자에 대한 사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시행토록 하고,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등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지속 양성하는 등 버스 52시간 대응과 관련하여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< 보도내용(6.18, 중앙일보) >

◆ “초보기사 대신 승객이 기어조작” 불안한 버스 주52시간

- 7월부터 노선버스 주52시간 적용 “무경력 기사 많아 사고 위험” 우려
해당 업체 몰린 경기도 특히 심각, 안전 위한 주 52시간이 안전 위협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상황총괄대응과 이경호 서기관(☎ 044-201-415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